



원전 건설의 경쟁력을 강화

동아건설산업(주)

지난 97년은 경제적으로 한보 부도, 기아 사태 등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대기업 연쇄 도산과 금융 대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받는 몫시 어려운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15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차기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기조는 동서 화합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등 경제 난국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97년도의 성과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동아건설산업(주)는 원자력 건설 분야에서 97년 11월 11일 울진 3호기 핵연료 장전 및 97년 12월 6일 울진 4호기 상온 수압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원자력 건설 수행에 대한

동아건설산업(주)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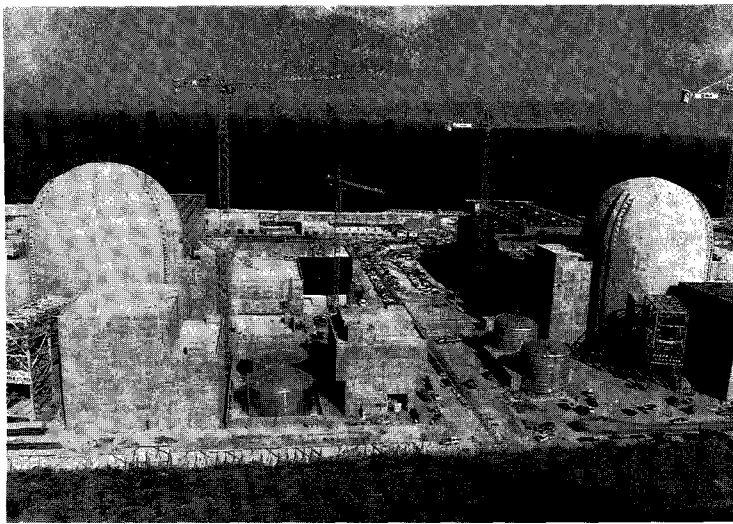
또 97년 3월 14일 울진 5·6호기 주설비 공사(설비 용량 100만 kW × 2)를 수주, 97년 4월 16일 계약 체결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다.

한국 표준형 원전 수출의 첫단추인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의 초기 공사의 기공식을 북한 신포에서 지난 8월 19일 거행함으로써 해외 원전 사업도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 전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필요성의 요구로 개발된 전력 산업 기술 기준에 따라 동아건설산업(주)가 인증 취득·유지중인 ASME NA, NPT 인증서를 동 기준으로 자격 변환 신청(97. 6. 17)과 심사(서류 심사/전력기준위원회) 과정을 통하여 97년 8월 27일 KEPIC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서를 취득, 향후 추진 중인 한국 표준형 원전 건설의 선두자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동아건설산업(주)는 11월

12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공동 주관한 건설혁신전국대회에서 사업 관리 제도의 정착, 체계적인 기술 개발 및 정책 수립, 업계 최초의 ISO 14001 인증 획득과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국내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 경영 대상과 건설 사업 추진 관리(CM) 대상, 플랜트, 환경 관리, 기술 개발, 개인상 등 6개 부문의 수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건설혁신전국대회는 시장 개방을 비롯한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국내 건설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치뤄지는 것으로 모두 12개 부문의 수상 업체와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번이 네 번째이다. 참가 업체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동아건설산업(주)는 이번 수상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발전적 경영상을 내외에 인정받음은 물론, 21세기를 향한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아건설산업(주)가 시공한 울진 3·4호기. 동아건설산업(주)는 오랜 국내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더욱 체계화·고도화하여 원자력 건설의 선진 기업이 되고자 한다.

또한 동아건설산업(주)는 구랍 1일,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제5회 안전경영대상 행사에서 일반 건설 부문 대상을 차지, 안전 관리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초일류 기업 인증 취득, 선진국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 근로자 주도형 안전 관리 기법 개발 등 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 나라 최고의 안전 사업장을 선정하는 행사에서 대상을 차지함으로써 안전 경영 분야에서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은은 물론, 안전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98년도의 사업 계획

98년에도 동아건설산업(주)는 이제까지 쌓아온 완벽한 원전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시공중인 울진 3호기의 성공적인 준공과 4호기 핵연료 장전 등 주요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정부의 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울진 5·6호기 주설비 공사의 착공 등 시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모두 8천억원 규모인 이 공사는 공동 수급체를 한국중공업(주)와 삼성물산(주) 등 3사로 구성하고 대표사인 동아건설산업(주) 지분율은 40.5%, 한국중공업(주) 39%, 삼성물산(주) 20.5%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원전 건설 최초로 주설비 공사를 3개사 공동 도급 계약에 의해 수행하게 되어 효율적인 공사 관리 및 계약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시공 관리 체제 운영을 위하여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는 공사관리실을 운영하여 현장 시공 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사전 조정 등 효율적인 시공 관리와 책임 시공 체제를 확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재 동아건설산업(주)가 시공중인 울진 3·4호기를 참조 발전소로 하는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의 본공사에도 적극 추진하여 그 동안 쌓아온 기술로 원자력 건설의 선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원자력 사업을 올해

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

경수로 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대규모의 남북 교류 협력을 수반하게 되고 많은 우리 인력과 물자가 북한에 투입될 것이며, 현장에서는 남북의 근로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수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 남북 관계의 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국제 경쟁력 강화

동아건설산업(주)는 오랜 국내 원전의 지속적 건설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더욱더 체계화·고도화하고, 원전 건설 국제 경쟁력 향상 워크숍에서 제시한 현장 사업 관리 방식 개선, 조직의 효율적 운영, 품질 업무 간소화 및 효율을 위한 시공 품질 최적화, 발주처와 시공사의 정보 공유 활용 시스템 개발에 의한 업무 전산화를 통한 시공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에 따라 IMF 관리 시대로 앞당겨진 세계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가간 무한 경쟁 체제 등 국내외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전 자립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는 이때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의 참여를 기반으로 아시아 등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여 IMF 관리 시대의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